

## 디테일로 진화하다...라이프스타일 코워킹 스페이스

최기성 기자 입력 : 2018.08.29 17:18:01

나는 프리랜서다. 그러나 일할 공간은 필요하다. 디지털 노마드의 일터이자 놀이터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어느새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획일적인 시설과 서비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업무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프리랜서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특별하고 섬세한 서비스로 무장한 진화하는 국내외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나보자.

▶ 여성과 모던 크리에이티브스를 겨냥하다

▷ 국내 첫 라이프스타일 공유 오피스 '빌딩블럭스'



국내 첫 라이프스타일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는 '빌딩블럭스'는 여성 기업인과 크리에이터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입주사가 제작한 작품과 머천다이즈를 전시할 수 있는 쇼룸, 전문 포토그래퍼의 자문을 받아 완성한 포토 스튜디오, 수공예 작업이 가능한 각종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작업실, 다양한 크기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스토리지 시설.... 이렇듯 빌딩

블럭스는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공간 배치에 있어 프라이빗 오피스와 핫데스크가 있는 오피스 플로어와 라운지, 쇼룸, 미팅룸 등의 다양한 공용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로비 플로어를 분명하게 나누는 등 각각의 시설들과 서비스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획했다. 빌딩블럭스의 인테리어는 흥대 핫플레이스인 라이즈(RYSE) 호텔의 설계를 총괄한 미국의 건축 사무소 SCAAA에서 전담, 모던 크리에이티브스를 위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빌딩블럭스는 국내 여성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 여성 전용 공간도 보유하고 있다. 15층에 있는 '우먼 온리 존(Women Only Zone)'은 두 번의 보안 과정을 거쳐 입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식 비상벨을 별도로 구비해 늦은 시간까지 혼자 일을 하는 여성들을 배려했다. 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위한 수유실, 어린 자녀가 있는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편히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키즈존(2018년 하반기 오픈 예정) 등의 시설도 눈길을 끈다.

#### ▶패션과 인테리어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

▷'에스아이랩', '무신사 스튜디오', '이노스페이스'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를 겨냥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청담동에 오픈한 패션 특화 공유오피스 'S.I\_LAB(에스아이랩)'은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패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을 연 것이다. 신규 사업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경우 에스아이랩 회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에스아이랩에서 브랜드 론칭 행사나 패션 관련 강연도 열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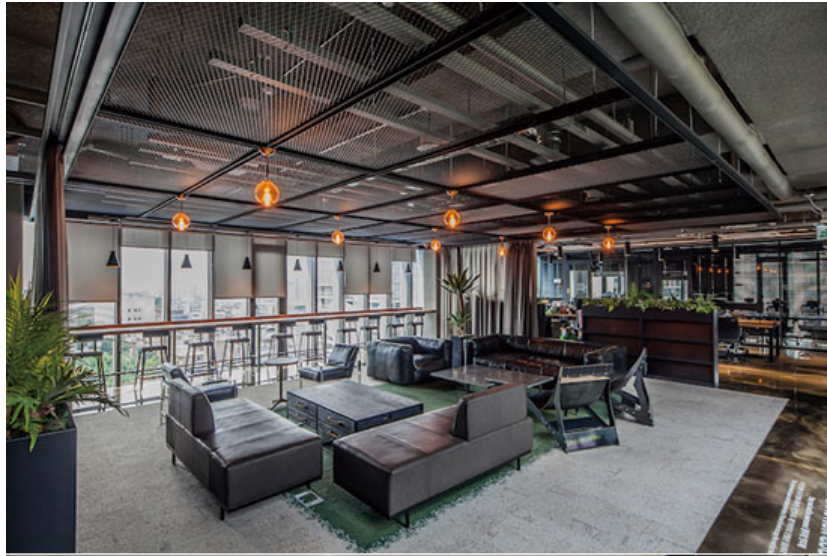
'무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랩. 이곳 역시 스트리트 패션의 메카인 서울 동대문에 약 2200평 규모, 최대 12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그랩은 소규모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활약이 '무신사'의 성장 기반인 만큼 '무신사 스튜디오'의 기능을 창업 초기 패션기업의 정착을 돕는데 맞췄다. 패션 산업에 특화된 부대시설과 서비스가 장점으로, 패턴 작업을 위한 패턴실과 간단한 의상 제작과 수선이 가능한 수선실 등 별도 공간이 있다. 그밖에도 제품 촬영, 모델 촬영, 영상 촬영이 가능한 크고 작은 11개의 촬영 스튜디오와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택배 수발실을 갖추고 있다.

인테리어 분야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이노스페이스'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유오피스다. 샘플룸, 디자인 라이브러리, VR, 3D 프린터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자인 라이브러리에는 약 600여 권에 달하는 건축·인테리어 전문서적을 보유, 고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위누가 운영하는 '아트업서울'은 순수 예술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단순히 공간 제공을 넘어, 신진 작가들의 창작·전시·수익·홍보활동을 돕는 플랫폼 역할도 맡고 있다. '아트프레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신진 작가들에게 작품 및 관련 상품의 유통은 물론 작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업과 작가의 연결해주는 사업 등도 함께 진행한다. 또 '오픈데이' 행사를 통해 작가가 대중에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반려견을 위한 주견대를 갖추다

▷성수동 소셜벤처 코워킹 스페이스 '헤이 그라운드'



약 250여 개 소셜 벤처 기업들이 밀집, 소셜 벤처 벨리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동의 '헤이 그라운드'도 흥미로운 곳이다.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가 지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처음부터 소셜 벤처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건물 설계 단계 때부터 입주 예정 소셜 벤처 기업가들로부터 공간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려동물 동반 허용' 역시 화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 헤이 그라운드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일을 보는 동안 반려견을 매어 둘 수 있는 주견(犬)대를 갖추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부티크 공유 오피스는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2017년부터 미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를 이끌어 온 여러 곳에서 이러한 흐름이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다.

▶잡지, 팟캐스트가 있는 여성 전용 코워킹 스페이스

▷미국 뉴욕 '더 워킹 뉴욕'





코워킹 스페이스 '더 윙(The Wing)'은 여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작된 곳이다. 여성의 취향을 반영한 세련된 인테리어와 여성 기업인들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하는 메시지로 30대 밀레니엄 세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더 윙의 멤버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여성들의 숫자가 8000명이 넘을 정도. 최근에는 이러한 인기를 반영, 얼마 전에는 <노 맨즈 랜드(No Man's Land)>라는 제목의 매거진과 팟캐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물리적인 경계를 떠나 더 윙이 지향하는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에 공감하는 이들과 미디어를 통해 교류를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미국 덴버 '그린 스페이스즈'



덴버의 RiNo 아트 디스트릭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린 스페이스즈(Green Spaces)'는 미국 최초의 에코 코워킹 스페이스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 콘셉트로, 지구의 환경에 관심을 두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린 스페이스즈는 건물 전체 에너지의 전부를 태양열 에너지에서 얻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제로'를 위해 전문 쓰레기 처리 업체와 협력하고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재활용 혹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차량 공유 서비스인 Zipcar와 제휴해 회원들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비즈니스 호텔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한 자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조쿠'



네덜란드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디지털 노마드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홈오피스, '조쿠(Zoku)'. 일본어로 '가족'과 '부족'을 의미하는 '조쿠'에서 이름을 딴 이곳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같은 도시에서 연결하고 함께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1990년대 일본에서는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 문화적 흐름으로 조쿠가 성행하기도 했었다. 암스테르담 조쿠의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를 위해 암스테르담을 찾은 글로벌 노마드를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와 호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 주거와 업무를 겸한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스 마이어(Hans Meyer)와 마크 용헤리우스(Marc Jongerius) 두 명의 창업자의 머리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조쿠를 완성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도 했는데, 총 30만 유로의 목표액이 18분 만에 달성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 김선영(작가 및 라이프스타일 블로거) 사진 각 코워킹 스페이스]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44호 (18.09.04)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